6자회담 북핵 타결

부시 "외교적 해결 위한 최선의 기회"

■北, '악의 축' 고리 풀리나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를 계기로 지난 2002년 이후 북한에 덧씌워져온 '악의 축' 고리가 풀리게 될까.

조지 부시 대통령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등 미 고위 관리들이 13일 이번 합의를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 "북한 핵폐기를 향한 첫 조치"라고 대대적인 환영의 뜻을 표하고 나선 것을 감안하면 그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 어렵다.

부시 대통령이 특별성명을 통해 "북핵 처리에 외교를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환영했고, 라이스 장관도 "좋은 출발"이라고 평가함으로써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 정부가 자신들이 주장해온 외교원칙, 이른바 북한이 요구해온 양자접촉을 배제하고 다자 접근을 통한 해결 방식이 깨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이번 합의는 다자간의 약속이고 중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여국들이 합의 당사국으로 가담했다는 점에서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게 미 정부 주장이다. 북의 의도에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외교방식을 통해 북한의 양보를 이끌어냈다는 주장인 셈이다.

지난 6년간 이렇다할 외교업적 하나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 낙제점은 면할 수 있게 됐고, 골치아픈 이란 핵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낙관론의 근거로 작용한다.

부시 행정부는 이란 정부와 핵프로그램 강행여부를 놓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더 이상의 도발이나 사태 악화를 막았다는 사실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일각에선 이번 6자회담에서 북한의 '숙원사업'이었던 테러지원국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절차를 시작키로 한 사실은 북미관계에 일대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는 성급한 낙관론을 제기한다.

이는 부시 대통령이 지목한 '악의 축'의 주축인 이란과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 적용될 것이라는 분석을 가능케한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급한 불을 끄는데 역점을 둔 일시적 '봉합조치'일 뿐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이루기까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신중론이 만만찮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쇄와 그에 따른 5만t 상당의 중유지원을 하는 향후 60일내 행동계획은 비교적 실현가능성이 높지만, 그후 핵시설 불능화 조치에 이르는 길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언제든 북미관계가 또 다시 뒤틀어질 가능성을 내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연합뉴스

힐-김계관, 뉴욕·평양 교차방문할 듯

■北-美 관계 정상화되나

비핵화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받는 '2·13 합의' 이후 미국과 북한 관계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회담에 정통한 현지 외교소식통들은 14일 이번 회담이 타결되는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 부상간에 '상대국 교차방문'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힐 차관보는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 폐막 후 숙소인 베이징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미 실무그룹의 첫 단계로 김계관(북한 외무성 부상)을 뉴욕에 초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미국측의 김 부상 초청 제의와 같은 것이 북한측으로부터 미국에 제의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힐 차관보도 회담 전에 북한측이 초청하면 평양에 갈 용의를 밝힌데서 보듯 양측 수석대표의 상대국 교차방문은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북한과 미국은 이번 합의에 포함된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30일내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석대표를 상대국에 초청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의 수석대표를 6자회담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와 김계관 부상이 겸임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김 부상이 뉴욕을 방문한다면 이는 실무그룹 회의를 뉴욕에서 개최하고 북한측 수석대표로 김 부상을 초청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차 실무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할 경우 힐 차관보가 미국측 대표로 자연스럽게 방문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나 대(對) 적성국 교역법 해제 논의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경우 양국 수석대표 뿐 아니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등 장관급 인사의 평양 또는 워싱턴 교차방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연합뉴스

무게 실리는 '라이스-힐 라인'

북핵 타결로 영향력 확대
체니 등 강경파 입지 약화

북한 핵문제에 관한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과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영향력이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북핵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된 13일 특별성명을 통해 이들 두 사람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물론 이들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신뢰가 워낙 두터워 일각의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 건재를 과시해 왔다.

다만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이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계기로 이라크전의 책임을 지고 전격 퇴임하면서 라이스 장관이 전적으로 뒷감당을 할 수 밖에 없게 돼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의 두 축인 라이스와 힐의 노고를 치하한 것은 의례적인 수사 차원을 넘어 이들에게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를 뒤집어 보면 북한 핵문제에 관한한 체니 부통령을 위시한 강경 네오콘(신보수주의)들이 개입할 소지가 그만큼 적어졌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워싱턴=연합뉴스

北 김정일 생일 분위기 띄우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16)을 기념하기 위해 14일 평양에서 열린 '김정일화(花) 축전'에 참석한 북한 여군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클레오파트라는 미인 아니었다"

역사를 바꾼 절세 미인으로 알려진 클레오파트라와 그의 연인 안토니우스는 소문 만큼 아름다운 선남선녀가 아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이 14일 보도했다.

셰익스피어의 연극작품 등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의 미모가 안토니우스에 끼친 영향은 완전히 매혹적인 것이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좁은 이마·뾰족한 턱…
英 인디펜던트지 보도

2천년 전 로마 시대 은화 동전을 연구한 결과 클레오파트라는 좁은 이마에 뾰족한 턱, 얇은 입술, 날카로운 코를 가진 모습이었으며, 안토니우스 역시 툭 튀어나온 눈에 비뚤어진 코, 굵은 목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원전 32년에 제작된 이 동전은 한 은행 금고에서 발견됐으며, 동전이나 화폐는 그 시대 지배자의 얼굴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시물이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이 동전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올리언스, 이번엔 토네이도 강타

토네이도가 13일(현지시각) 미국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뒤 사람들이 한 파괴된 집을 수리하고 있다. 이날 일리노이주를 비롯한 중서부 지역에는 시속 50마일(약 80km)이상의 강풍을 동반한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항공기 무더기 결항과 교통 사고등 피해가 잇따랐다. /AP=연합뉴스

日 12년만에 '자동차 생산국' 1위 탈환

지난해 미국 제쳐…한국은 5위 유지

지난해 일본이 미국을 제치고 12년만에 세계 1위의 자동차 생산국에 등극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중국, 독일에 이어 5위 자리를 지켰다.

14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자동차생산 자료(해외 현지생산은 현지국가에 포함)를 분석한 결과, 일본이 1천148만4천대를 생산해 세계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 자리를 탈환했다.

해외생산 확대로 지난 1994년부터 미국에 생산국 1위 자리를 내준 일본은 지난해 수출이 전년대비 18.1%나 급증한 데 힘입어 생산이 6.3% 증가, 미국을 2위로 끌어내렸다.

우리나라는 전년대비 3.8% 증가한 384만대를 생산해 2005년에 이어 5위 자리를 지켰다. 세계 생산비중은 5.5%를 기록했다.

자동차 생산국 2위는 1천126만4천대를 생산한 미국이 차지했으며, 3위는 중국으로 전년대비 27.7% 증가한 728만대로 2005년보다 한 단계 올라섰다.

반면 582만대를 만든 독일은 4위로 떨어졌다.

6위는 프랑스(327만7천대), 7위는 스페인(277만7천대), 8위는 캐나다(257만2천대), 9위는 브라질(240만대), 10위는 멕시코(204만6천대) 순이었다. /연합뉴스

우주탐사선 '율리시스호' 태양 남극 접근

지난 1990년 10월 발사된 미·유럽 우주탐사선 '율리시스'가 최근 태양의 남극 상공에 도달해 귀중한 자료를 보내 왔다고 스페이스 닷컴이 보도했다.

미 항공우주국(NASA)과 유럽우주국(ESA)의 공동 프로젝트인 율리시스는 4개월 동안 태양의 남극을 근접 통과할 계획인데 지난 8일 최단거리에 접근했다.

NASA의 율리시스 담당 애릭 포즈너 박사는 "태양의 남극은 미답의 영역으로 지구에서는 볼 수가 없는 곳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태양 탐사선들은 태양의 적도대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고위도 대의 시야가 불량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